

다니엘의 책 - 제128번

그리스도의 세례와 시험의 예언적 의의: 세 강대국의 특성 규명

Jeff Pippenger

2024-03-10

인침은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강한 천사가 강림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의 강림은 1840년 8월 11일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강림과 그리스도의 침례 때 성령의 강림으로 예표되었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시작되었고, 또한 그때 아래로부터 오는 능력(무저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곧 광야로 들어가 사십 일을 금식하셨고, 그 뒤에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그 세 가지 시험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세력 각각의 주된 특성을 나타낸다. 그 시험들은 용의 특성인 교만, 짐승의 특성인 식욕,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특성인 자기 과신이었다. 교만과 자기 높임은 이사야서의 고전적 묘사에서 루시퍼로 대표된다.

오 루시퍼여, 새벽의 아들이여,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찌 땅에 짙혀 넘어졌는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또한 나는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가장자리로 끌려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유심히 바라보고 헤아리며 말하기를, '땅을 떨게 하고 나라들을 흔들던 자가 이 사람이냐?' 하리라. 이사야 14:12-16.

루시퍼는 마음속으로 다섯 번 '내가 하리라'라고 선포한다. 한때 '빛을 가져오는 자'(루시퍼)라 불렸으나 이제는 오직 어둠만을 지닌 사탄은 '열방을 흔들던 자'이다. 예언적으로 그는 '열방'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는 열방의 사악한 연합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지목된 상인들의 연합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왕들과 통치자들과 총독들은 스스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취하였으며,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곧 성도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는 용으로 표상되어 있다." Testimonies to Ministers, 38.

그리스도의 세례 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이는 2001년 9월 11일 이후를 예표하였다. 세례를 받으신 후 사탄은 자신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분을 시험했다. 아담의 타락 때 사탄이 세상 나라들의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귀가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마귀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 모든 것이 내게 넘겨졌고,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 그것을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5-8.

교황권 로마(짐승)의 두 가지 주된 특징은 그녀의 음행과 그녀가 배포하는 독이 섞인 '음식'과 음료이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네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가르치게 하고 내 종들을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게 함이라. 요한계시록 2:14.

그녀가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는 그녀의 거짓된 교리다.

바벨론에게 중대한 죄로 지적된 것은 그녀가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녀가 세상에 내미는 이 취하게 하는 잔은, 그녀가 땅의 권세자들과의 부정한 연합의 결과로 받아들인 거짓 교리들을 상징한다. 대쟁투, 388.

가톨릭의 짐승 또한 그녀의 주술로 온 세상을 속이며, 이는 다시 한 번 몸 안으로 복용되는 것이다.

등불의 빛이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리라;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큰 자들이었으며 네 주술로 만국이 미혹되었음이라. 요한계시록 18:23.

'주술'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pharmakeia로, '약물'을 의미한다. 그녀의 손에 든 금잔은 포도주를 마시는 잔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법적인 의료 물약이 조제되고 전달되는 잔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그 마법의 물약들은 잔이 아니라 주사로 투여된다.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 이후 사탄이 나타나면, 그는 치유의 기적을 행할 것이다. 교황권의 물약과 거짓 교리와 관련된 기적은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라고 말한 것으로 상징되었다.

일요일 법령 전후의 예언적 역사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재림주의를 위한 짐승의 형상 시험 기간은 전 세계를 위한 짐승의 형상 시험 기간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위기가 세계 도처에 있는 우리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는다.

주일법 이후 사탄이 행하는 치유의 기적들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역사 속에서 소위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밀어진 '주술'을 대표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로마의 '양식'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전통과 관습이다.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이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운동들 속에서, 개신교인들은 교황주의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황권이 구세계에서 잃어버린 그 지배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주요 목적이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일요일 준수는 로마에서 비롯된 관습이며, 로마는 그것을 자신의 권위의 표징이라고 주장한다. 세속적 관습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숭상하는, 곧 교황권의

정신이 개신교 교회들에 스며들어, 그들로 하여금 교황권이 앞서 해 온 것과 동일한 일요일 숭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위대한 논쟁, 573.

전통과 관습은 짐승이 자기의 이교적 우상숭배를 드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내세우는 교리적 "양식"이다.

로마 교회가 우상숭배라는 혐의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물론 로마 교회는 이러한 형상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 앞에 절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러나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타올랐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경한 우상숭배자라고 선언하셨고, 오늘날에도 성인과 이른바 거룩한 사람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늘의 책들에 같은 기록이 남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개신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호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종교이며, 결국 개신교와 연합하게 될 종교이다. 그러나 이 연합은 가톨릭의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는 무류성을 주장한다. 변할 것은 개신교이다. 개신교가 자유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이면 가톨릭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 성경이 우리 믿음의 기초다'라는 것이 루터 시대 개신교인들의 외침이었고, 반면 가톨릭은 '교부들, 관습, 전통'을 외쳤다. 이제 많은 개신교인들은 성경에서 자신의 교리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며, 그럼에도 십자가를 동반하는 진리를 받아들일 도덕적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빠르게 가톨릭의 입장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진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논거를 동원하여 교부들의 증언과 인간의 관습과 계명을 인용한다. 그렇다, 19세기의 개신교인들은 성경에 관한 불신앙에 있어서 가톨릭에 빠르게 근접해 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로마와 루터, 크랜머, 리들리, 후퍼와 그 고귀한 순교자들의 대열이 대표했던 개신교 사이에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프로테스탄트(개신교도)'라는 이름을 얻게 한 그 항의를 했던 그때만큼이나 넓은 간극이 여전히 가로놓여 있다.

"그리스도는 개신교도였다. 그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유대 민족의 형식적인 예배에 항의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으며 사칭자요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다. 개혁자들의 기원은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나와서 형식과 의식의 종교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했다.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개혁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제시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길잡이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황과 그의 일꾼들은, 성경이 그들의 가장을 폭로하고 그들의 우상숭배를 꾸짖기 때문에, 마치 저주인 양 그것을 백성에게서 빼앗아 버린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6년 6월 1일.

심령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치유의 기적은 그녀의 주특기다.

많은 이들은 심령 현상을 영매의 사기와 손재주 탓으로만 돌려 전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사기의 산물이 종종 진짜 현상으로 둔갑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초자연적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현대 심령주의가 시작된 그 신비로운 두드리는 소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천사들의 직접적인 역사였고, 그들은 이렇게 하여 영혼을 파멸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미혹 가운데 하나를 들여왔다. 심령주의가 단지 인간의 사기일 뿐이라고 믿는 까닭에 많은 이들이 울무에 걸릴 것이다; 그들이 초자연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현상들과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은 속임을 당해 그것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행한 이적들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간과한다. 바로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의 도움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와 유사한 사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증언한다. 주님의 오심에 앞서 '사탄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역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9, 10. 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들에 나타날 기적 행하는 능력을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행할 능력이 있는 그 기적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한다.' 요한계시록 13:13, 14. 여기에서 예언된 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대리자들이 행할 능력이 있는 기적들로 미혹되는 것이지, 그들이 행하는 척하는 기적들로 미혹되는 것이 아니다. 대쟁투, 553.

관습과 전통에 근거해 세워진 거짓 교리들, 심령주의적 기적의 현상들, 사이비 의료 산업, 그리고 교권과 정권의 결합은 모두 가톨릭의 짐승이 가진 속성들이다. 교만은 용의 권세의 특징이다. 주제넘은 확신은 배도한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사십 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날들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끝나자 주리셨다. 마귀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떡이 되라고 명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다." 누가복음 4:1-4.

추정은 충분한 증거나 증명 없이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행위나 사례를 가리키는 명사다. 이는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추정은, 비록 그것이 완전히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자신의 추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암시하기도 한다.

배도한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잘못된 생각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음에도 일요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받아들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마르틴 루터가 선포한 "Sola Scriptura!"를 모토로 하는 프로테스탄트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근거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어쩌면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그냥 당연한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택한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울려 퍼질 때, 성경으로부터 태양을 예배할 정당성을 전혀 찾아낼 수 없다는 진리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그때에도 그릇된 추정을 계속 고집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진리의 빛이 당신에게 비추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드러내고, 일요일 준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보여 주었음에도, 여전히 거짓 안식일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날'이라 부르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이 보통의 일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임을 보여 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요일에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는 칙령에 순종할 때,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는 데 동의하고 하나님의 인을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되면, 불순종한 자들에게 선포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찍힌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11년 4월 27일.

공화당의 널리 알려진 약점은, 민주당의 열매가 분명히 그들이 거짓의 아버지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정치적 반대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다고 쉽게 가정하는 태도다. 공화당은 상대가 약속을 결코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거듭 드러났음에도,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정적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그들은 공화당이 기대하는 정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잘못된 투사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거듭해서 전혀 보여주지 않은 이들에게조차, 정직한 동기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나, 그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은밀한 비도덕적 사정 때문에 원칙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공화당원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 공화당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선부른 가정이다.

배도한 개신교도들에게서 예언적으로 지목된 오만의 속성이, 정작 그들이 정치적 반대자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공허한 기대 아래 시민적 책임을 저버렸으면서도, 자신들이 더 높은 도덕적·정치적 고지를 점했다고 가장하게 만든다. 광기에 대한 매우 흔한 정의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공화당은 트럼프에 대한 증오로 드러난 광기에 감염된 쪽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공화당의 광기는, 타협이 입법 과정의 소산이라는 전제 아래 타협에 동의하는 그들의 행태에서 거듭 드러난다. 그들이 '입법 과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타협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부류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민주당은 의석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해 완전히 제약될 때에만 정치 과정에서 양보한다. 그들은 정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중간지대를 모색해 왔다는 증거를 결코 제시하지 못했다. 공화당의 광기란 상대방에 대한 전혀 근거 없는 낙관적 기대를 되풀이하는 데 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의 절대다수는, 이용 가능한 증거가 그 선택이 전적으로 트럼프의 주제넘음이었음을 가리키는데도, 그가 사람들을 자신의 의제의 지지자로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는 점이 트럼프의 최악의 속성이라고 증언할 것이다. 주제넘음은 배교한 개신교의 예언적 속성이다.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시험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그 구절을 왜곡해 정당하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은 시험으로 만들었다.

그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지키라고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9-12.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과 관련하여,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라는 성경의 명령을 가져다가,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을 왜곡하여 사람들은 사실상 이교의 태양의 날에 예배해야 한다는 조작된 명령으로 바뀌

놓을 것이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비틀어 정당성도 없고 비성경적인 시험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나는 두 뿔 달린 짐승이 용의 입을 가지고 있고, 그의 권세가 그의 머리에 있으며, 칙령이 그의 입에서 나올 것임을 보았다. 그때 나는 음녀들의 어미를 보았는데, 그 어미는 딸들이 아니라 그들과는 분리되고 구별된 존재였다. 그녀의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녀의 딸들, 곧 개신교 분파들이 그다음으로 무대에 올라 어미가 성도들을 박해하던 때 가졌던 그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어미의 권세가 쇠퇴해 오는 동안 딸들은 성장해 왔고, 머지않아 그들이 한때 어미가 행사했던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을 보았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이 유다처럼 우리를 가톨릭 측에 넘겨, 그들의 영향력을 얻어 진리를 대적하려 하리라는 것을 보았다. 그때 성도들은 가톨릭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관습을 아는 교회들과 명목상의 재림교인들(그들은 안식일을 반박할 수 없었기에 그로 인해 우리를 미워하였다)은 성도들을 배반하고 그들을 가톨릭 측에 고발하여, 그들이 백성의 제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이다. 곧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무시한다고.

"그때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인들에게 나아가라고 하고, 개신교인들은 일곱째 날 대신 한 주의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칙령을 내린다. 그리고 수가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인들의 편에 설 것이다. 가톨릭은 그 권세를 짐승의 형상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성도들을 멸하려고 그들의 어머니가 앞서 행하던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칙령이 열매를 맺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스폴딩과 매건, 1, 2.